

유통업계 CEO, 국감 대신 해외로 불공정 거래 의혹 등 현안 공회전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줄줄이 불참
출석기업 임원, 원론적 답변 일관
별다른 소득 없어… ‘맹탕’ 비난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CEO들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줄줄이 불참했다. 출석한 기업 임원들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결국 ‘맹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끝난 이번 국감에는 쿠팡, 신세계, 이마트, 무신사, 다이소 등 주요 유통사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출석은 쿠팡, 홈플러스, 배달의민족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해외 출장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전 사유서를 제출하며 채택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 쿠팡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다이소 김기호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 주요 타깃이 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출석해 과도한 입점 수수료 문제와 긴 정산 주기, 쿠팡파트너 납치성 광고 논란에 대해 질의받았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정부위원회에 출석해 배달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답변했다.

국회에선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연일 질타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정부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30일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할 자금에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이 아닌 매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에 출석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과도한 자사주 보유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고 사장은 “계열사 실적 부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하며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산자위에 출석한 이주철 W컨셉 대표는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강요’ 의혹에 대해 “패션 특성상 재고 소진을 위해 셀러가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정부위와 산자위에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앱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지적했으나, 김 대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1일 복지위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대표이사로서는 처음 국감장에 섰다. 정 대표는 ‘농약 우통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의원들은 식품 안전 관리 부실 문제와 더불어 백화점 ‘특약매입’ 구조의 불공정성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고 출석한 증인의 소득 없는 답변이 이어지며 이번 국감도 실질적인 현안 해결 없이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이마트24, 카페 브랜드 ‘성수310’ 선포

컵커피 4종·파우치음료 8종 출시

이마트24가 대한민국 트렌드 중심지 ‘성수’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카페 브랜드 ‘성수31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속 카페를 콘셉트로, 얼죽아족트렌드와 합리적 소비 수요에 맞춰 기획됐다.

성수310은 이마트24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의 지역명 ‘성수’와 도로명 주소 ‘310’을 결합한 이름이다. 최근 이마트24의 컵커피 매출은 2022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서울대 밥스누 약콩두유빵 시리즈가 인기를 끄는 등 편의점 카페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성수310 라인업으로는 RTD 컵커피 4종(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둘체라떼)과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파우치음료 8종(아메리카노블랙, 망고패션블렌디드, 스윗뱅크 등)을 우선 선보인



모델들이 이마트24 카페 브랜드 ‘성수310’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

다. 향후 RTD 과채음료와 베이커리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성수310 론칭을 기념해 RTD 컵커피 4종에 대해 2+1 행사를 운영하고, 제휴카드 및 페이로 결제하면 2+2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한달간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GS25, 한 달간 ‘연말 주류 페스타’ 진행

크리스마스 와인 등 1500여종 준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본격적인 연말 시즌 시작을 맞아 11월 한 달간 ‘2025 연말 주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홈파티와 셀프 기프트(Self-Gift)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연말 준비가 앞당겨지는 ‘미리 크리스마스’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GS25는 연말 주류를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와인·샴페인·위스키 등 약 1500종의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먼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줄 대표 와인으로 ▲모델 크리스마스 로제·리슬링(4만2900원) ▲헤센 크리스마스 로제·리슬링(2만9900원)을 준비했다. 두 와인은 독일 대표 와인 생산지 ‘모델’과 ‘라인헤센’에서 생산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병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전 세계에서 출시하는 핫와인 ▲2025 보졸레 빌

라주 누보(3만9000원)도 GS25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졸레누보’는 그해 9월에 수확한 포도를 4~6주간 짧게 숙성한 것으로 베리류의 프루티한 향과 산뜻한 파니시가 조화를 이뤄 어떤 음식과도 페어링하기 좋다.

위스키는 1만 원대의 대용량 가성비 제품부터 GS25 단독 판매 프리미엄 위스키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홈파티에서 하이볼로 다 함께 즐기기에 좋은 1L 용량의 가성비 위스키로 ▲컨시에르 위스키(1만4900원) ▲그란츠 트리플우드(1만9900원) 등이 있으며,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블렌디드 스키키 위스키 ▲스코티쉬 리더셰리 캐스크(6만9000원)를 GS25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이밖에도 인기가 높은 위스키 11종을 ‘이달의 위스키’로 선정해 ▲조니워커 블랙(4만7200원) ▲조니워커그린(9만4000원) ▲제임슨(3만4900원) ▲발렌타인 글렌버거 12년(8만9000원) 등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CU-쿤달, 편의점용 헤어·바디상품 출시

편의점 CU가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브랜드 ‘쿤달(KUNDAL)’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편의점용 헤어·바디상품 3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업 상품은 쿤달의 대표 라인인 ‘히니 앤드 마카다미아’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3종이다. 편의점 소비자 수요에 맞춰 200ml 소용량으로 선보이며,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과 호주산 마카다미아씨 추출물을 함유했다.

CU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식품류에 집중됐던 차별화 상품을 비식품카테고리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지도 높은 프리미엄 상품을 소용량으로 출시해, 가격 부담 없이 시범 구매를 원하는 고객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최민지 생활용품팀 상품



CU가 쿤달과 협업한 헤어·바디상품을 선보인다. /CU

기획자는 “구매 부담은 낮추고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최신 인기 생활용품을 소용량, 가성비 버전으로 재해석 했다”며 “이번 쿤달과의 협업은 CU가 앞으로 비식품류 전반에서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차별화 상품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백화점, ‘라인페이 대만’ 도입

6일 서비스… 관광객 편의성 개선
“글로벌 고객경험 선도 백화점 도약”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월 31일 ‘라인페이 대만’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6일부터 전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라인페이 대만’은 131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만 1위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번 도입으로 대만 관광객들은 환전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방식으로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 오픈을 기념해 내년 1월 31일까지 ‘라인페이 대만’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라인페이 대만’ 오픈 세레머니에서 롯데백화점 박상우 영업전략부부장(왼쪽)과 라인페이 대만 오동빈 글로벌 사업 총괄 겸 라인페이플러스 CPO(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이용 고객을 위한 대규모 혜택도 마련했다. 20만원 또는 4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0% 상당을 라인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은 방한 관광객 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관광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제휴를 통해 대만 관광객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영업전략부부장은 “이번 ‘라인페이 대만’ 도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결제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고객 경험을 선도하는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쿠팡, ‘스위트샵’ 기획전… “마음 전하세요”

간식·선물 3만여개 한데 모아

쿠팡이 수능·빼빼로데이 등 다가오는 기념일들을 맞아 수험생과 연인을 위한 간식과 선물 3만여개를 한데 모은 ‘스위트샵’ 기획전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식품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로켓프레시 휴먼테리어 뷰티 주방

용품 패션 반려용품 출산유아 문구&사무용품 자동차용품 등 총 12개 카테고리가 참여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응원 선물부터, 11월 11일 기념일 간식과 연인 선물, 반려동물과 아이를 위한 간식까지 쇼핑 편의를 높인 다양한 테마관을 통해 선보인다.

주요 테마관은 ▲매일 대표 상품 10개를 추천하는 ‘오늘의 추천템’ ▲초콜

릿·건강식품·도시락 등으로 구성된 ‘수능선물’ ▲연인을 위한 ‘11.11 Day 선물’ ▲아이·반려동물 간식을 모은 ‘우리가족 간식’ 등이다.

또한 3일부터는 13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브랜드데이’도 운영한다. 브리즈, 뉴트리원,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빼빼로, 뉴케어, 농심켈로그, 오리온, 코코도르, 아모레퍼시픽, 세노비스, 페레로로셰, 엠앤엠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일자별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